

대구 고무제품 가공공장 화재

내부 270여㎡에 기계·설비 소실 ... 인근 공장 2곳에도 옮겨

대구에서 한 고무제품 가공 및 유통공장에서 불이나 6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.

7월6일 0시48분경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고무제품 가공·유통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공장 2곳으로 옮겨 불은 후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.

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내부 270여㎡와 기계 등이 모두 불에 타고 나머지 2곳도 각각 내부 60여㎡, 30여㎡와 설비 등이 소실돼 6000여만원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“7월5일 오후 6시경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했다”는 직원 박씨의 진술과 “불이 난 공장 천정 부근에서 처음 불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7/06>